

전남대병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전문병원’ 선정

본원·화순 본원, 종양학 분야 각각 87위·30위 올라
뉴스위크, 10개국 의료진 8000명 온라인 설문조사

전남대학교병원은 글로벌 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전문병원 (Best Specialized Asia Pacific Hospitals 2025)’에 종양학·소아과 등 2개 분야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뉴스위크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인 스타티스타에 의뢰해 대한민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 8000여명의 의료진에게 온라인 설

문 조사를 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본원은 종양학(Oncology) 분야의 아·태지역 125개 의료기관 중 각각 30위와 87위를 차지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34위) 보다 4단계 상승했다.

양 병원은 종양학 분야로 선정된 국내 22개 병원 중 비수도권 병원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암 특성과 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해 본원인 전남대병원까지 함께 3년 연속 종양학 분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은 소아과(Pediatrics) 93위를 차지하는 등 본·본원이 여러 분야

에서 세계적인 병원과 경쟁하고 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이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것은 진료·연구·교육 역량이 학계와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면역치료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본원은 환자 중심의 암 치료는 물론 디지털과 바이오, 정밀 의료와 결합한 차세대 의료를 실현하는 ‘글로벌 암 치료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병원으로 성장해나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PEOPLE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전남농기원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 교육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장주의 현장 지도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 기초·심화과정’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 자원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기초적인 운영 역량부터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기초과정은 농촌교육농장의 개념 이해와 운영에 관한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심화과정은 실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김동관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은 “이번 교사양성 교육을 통해 농업의 교육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장주들이 학교 교육과 연계된 체험학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농장을 중심으로 한 농촌교육 기반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자원봉사센터와 서구자원봉사센터는 광주자원봉사 기업협의체,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 11, 12일 이틀간 광주 서구 서창행정복지센터 일대 농촌 지역에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자원봉사 기업협의체, 어르신 주거개선 지원

서구 서창동 농가 대상... LED 전등교체·가스정비·화재경보 설치 등

광주자원봉사센터와 서구자원봉사센터는 광주자원봉사 기업협의체,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 11, 12일 이틀간 광주 서구 서창행정복지센터(서구 불재로 412) 일대 농촌 지역에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에 광주자원봉사센터가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광주지역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고령농가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 모델을 실현하고, 기업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효과를 높였다.

총 2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525명의 농촌 주민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봉사

활동을 통해 수혜를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KT전남전북광역본부, 유디상무치과의원 등 광주자원봉사 기업협의체 소속 기관과 단체들이 연대해, LED 전등 교체, 가스 점검 및 가스타이머 설치, 화재경보기 설치, 태양열 에너지 설비 점검 등 각 기업의 전문성을 살린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자원봉사센터 류미수 센터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봉사가 아닌,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원봉사 정신이 결합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송기 기자 sky@gwangnam.co.kr



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우 25명이 12일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를 견학했다.

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아카데미

한빛원자력본부 견학...전력 생산 등 현장 체험

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아카데미(회장 전민수) 원우 25명이 12일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를 견학했다.

원우들은 이날 오후 한빛원전을 방문해 백주현 홍보기술팀 차장으로부터 한빛본부 소개 영상과 발전현황, 지역 상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에너지팜에서 원자로 실물 모형을 보며 원전 가동 현장을 체험했다.

이어 가압경수로형 6호기로 이동, 전력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견학을 마친 원우들은 백제불교도래지를 거쳐 영광백수해안도로에서 커피타임을 갖고 7월 원우회 여행과 하반기 진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화실 휴심정 대표는 “원전이 국가와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정부도 에너지믹스를 통해 원전도 AI시대에 꼭 필요한 전력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동구 학동 지사협, 취약계층 나눔 실천

돌봄 이웃·복지시설에 물김치 전달

광주 동구 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돌봄 이웃과 복지시설에 물김치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학동 지사협 위원 10여명은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돌봄 이웃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물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구순자 지사협 위원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김치를 준비했다”며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정 학동장은 “돌봄 이웃을 위한 물김치 담



기에 함께 해주시는 학동 지사협 위원에게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영·호남 여성지도자 남도문화포럼

농협 전남본부와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 전남·경남도지회는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에서 ‘제18회 영·호남 여성지도자 남도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전남·경남 고향주부모임이 주최가 된 이번 행사는 농협 전남·경남본부 임직원과 전남·경남도지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이해와 농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쌀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쌀 소비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우리 쌀의 실질적인 소비촉진 활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신금숙 고향주부모임 전남도회장은 “전남과 경남 여성 지도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회원 간의 결속과 화합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염염,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아,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청동 대광로제비앙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부음

▲김병수씨 별세, 허균(프로야구 KIA타이거즈 홍보팀 프로)씨 장인상= 11일,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101호, 발인 13일 오후 12시 30분. 062-527-1000.

운세 (음력 5월 18일)



48년생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60년생 재난이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
72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라
84년생 귀하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라
96년생 실질적인 영향력에 놓인다



51년생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다
63년생 거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75년생 지체 없이 사과하라
87년생 결보기보다 내실을 기하라
99년생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지장이 없다



54년생 평소엔 건강에 신경을 써라
66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자
78년생 상사 입장에서 생각하라
90년생 유지하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57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 터지겠다
69년생 파트너와 불화가 있겠다
81년생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93년생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다



49년생 주변사람의 간언이설에 속지말라
61년생 초심으로써 수용하고 반영하라
73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
85년생 과감하게 시도하라
97년생 친구가 내 호주머니 노린다



52년생 이별수가 예상된다
64년생 협력자와 외종중들이 예상된다
76년생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
88년생 능력은 있는데 바라는 것은 크다



55년생 중요한 거래는 내일로 미루라
67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보라
79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91년생 부화뇌동하다가 곤란해질 수 있다



58년생 각별한 사이일수록 약속을 지키라
70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82년생 과감한 판단이 결성을 부른다
94년생 풀리지 않고 문제만 쌓이는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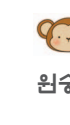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배우자와 성의여 결정하라
62년생 부동성 거래는 단념하라
74년생 천한 사이라도 비밀을 발설치 마라
86년생 혼자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98년생 데이트 가는데 친구와 동행하지 마라



53년생 잘 생각해 하고 행동하라
65년생 배만 대고의 힘을 가질 수 있다
77년생 분명한 입장에 서서 이행하라
89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56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진다
68년생 충고나 도움말을 받아들이라
80년생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마라
92년생 우연한 계기가 필연으로 연결된다



59년생 뒤돌아 보는 것이 순리
71년생 자금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83년생 주변 사람들이 이롭게 한다
95년생 이성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